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게 제23001호】주제99(2010)년 2월 18일(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와 무력기관들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공훈국가합창단은 남성합창 <그이는 우리의 선군령장>, <환눈덜인 고향집>, <장군님이 그리워>,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2월의 환희>, 관현악과 남성합창 <밀림이 설레이나>.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정말 좋은 세상이야>,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동지애의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철의 도시 밤하늘에 붉은 눈이 내리네>, 남성합창 <변이 나는 내 나라>, <은나라의 대경사로세>, <천세만세 장군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리라>, <승리의 길> 등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령부, 장군부를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관람자들은 시종 열정과 투지,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보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군대와 인민이 걸어온 자랑스런 로정을 감회깊이 들여다보았으며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위용될철 희망찬 새 세기를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솟구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장군님을 우러러 열광

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의 심장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설레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고감히 벌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최후돌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 10215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10215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 우동충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예술선전대원들은 이날 설화와 노래 <새해인사를 드리웁니다>, 여성5중창 <친근한 이름>, 대화시 <하늘처럼

민고 사는 품>, 여성중창 <복두철성은 그리움의 별>, 남성독창과 방창 <강성대국이 보인다>, 시 이야기 <영원한 동행자의 맹세>, 합창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강군으로,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로 자라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과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굳건히 담보해갈 인민군군인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시대정신이 나래치

는 열정적인 공연을 통하여 군인들의 심장마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도도히 맥박치는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그대로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참신하고 전투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김영일동지, 김양건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이날 예술선전대원들은 여성3중창 <복두철성은 그리움의 별>, 대화시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노래편곡 <내가 지켜선 조국>, <변이 나는 내 나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2인곡 <병사의 최대의 경계>, 극중창 <군인이 힘을 합쳐 울헤 농사 잘 지으세>, 선동곡 <세대는 바뀌어도>, 경북춤 <혁명을 위하여>, 회고록선동 <경위

대원들>, 시와 합창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을 무대에 올렸다.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령도의 사랑의 품속에서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인민군군인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예술인들은 전초가와 훈련장, 건설장들에서 전투적인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군인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불러일으키던 그 열정, 그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항일유격대식예술선전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였으며 군인들의 심장마

다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심어주며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군인예술인들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다.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우리 군대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특색있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가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감화력이 큰 예술선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전체 예술선전대원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전군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